

풍년도 고민 '마늘·양파' 값 폭락 조짐



작황호조로 생산량이 늘어난 햅마늘과 양파 값이 폭락 조짐을 보이며 농가 보호를 위한 정부의 수급 조절 정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농촌경제연구원 관측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마늘 재배면적은 2만7689ha로 지난해보다 2% 줄었다. 양파 재배면적도 2만1756ha로 전년 대비 18%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 겨울부터 기상 호조가 이어지고 병충해 발생 면적이 크게 줄면서 양파는 12~15%, 마늘은 19~22%까지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가 생산량 조절을 위해 마늘·양파 재배면적을 줄였지만 최상의 생육환경이 이어지면서 생산 과정으로 가격 폭락이 우려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 지난해보다 재배면적 줄어

기상 호조 등 과잉 생산 우려…수급조절 필요

서울 가락동 농산물시장에서 5월 초 거래된 양파 1kg 상품 가격은 평균 762원으로 지난 4월 거래 시세인 910원보다 크게 떨어지는 등 최소 생산비 보장을 위한 적정가격인 1000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간마늘도 1kg 상품을 기준으로 5675원에 거래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6752원 보다 값이 크게 떨어졌다.

특히 양파는 조생종에 이어 오는 6월부터 중만생종이 본격 출하되면 물가가 한꺼번에 시장에 몰리면서 가격 폭락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조생종 양파 생산량은 평년보다 '13~17%' 많은 18만9000t~19만5000t으로 전망했다.

중만생종 양파 생산량도 평년 대비 '12~15%' 증가한 126만5000t~129만9000t로 예측했다.

양파 가격 폭락은 전국 재배면적의 39%를 차지하는 전남지역 농가

의 피해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양파 1kg 상품의 연평균 가격은 2016년 1101원에서 2017년 1234원으로 올랐다가 2018년 819원으로 곤두박질쳤다. 올해 가격은 654원으로 지난해보다 더 떨어졌다.

시도별 양파 재배면적은 전남(8475ha), 경남(4330ha), 경북(3309ha), 전북(2373ha), 제주(1130ha) 등 순으로 컸다.

마늘재배면적은 경남(6598ha), 경북(5998ha), 전남(5803ha), 충남(3418ha), 제주(2116ha)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관계자는 "정부에서 수확기가 다가오기 전에 양파 수급 안정과 농가 보호를 위해 과잉 생산량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생산비 보장과 산지 폐기면적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뉴스스

광주 4월 고용률 전년 대비 소폭 하락…전남은 상승해

지난 4월 광주시 고용률과 실업률이 전년 동월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광주시 고용률은 58.9%로 전년 동월대비 1.0%p 하락했다. 취업자는 74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만 명 감소했다. 고용률은 58.9%로 1.0%p 떨어졌다.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전년 동월대비 4000명(3.4%) 증가한 13만2000명,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만4000명(-2.2%) 감소한 60만2000명으로 나타났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0.9시간으로 전년 동월대비 0.9시간 줄었다. 실업자는 3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2000명(-4.4%) 감소했다. 실업률은 4.5%로 0.1%p 하락했다.

지난달 전남도 고용률은 63.0%로 전년 동월대비 0.1%p 상승했다. 취업자는 96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비슷했다.

비경제 활동 인구는 48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만5000명(3.3%) 늘었다.

중흥그룹, (주)헤럴드 인수…지분 47.8%

재계 서열 34위의 중흥그룹이 헤럴드경제와 코리아헤럴드를 밟간하는 (주)헤럴드의 새로운 대주주가 됐다.

중흥그룹은 헤럴드의 최대 주주인 홍정욱 회장 등으로부터 보유 지분 중 47.8%를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인수 절차가 완료되는 6월 말이면 중흥그룹은 헤럴드의 최대주주로 경영권을 확보한다.

홍 회장은 중흥그룹과 협의에 따라 헤럴드의 인정적인 경영지원을 위해 지분 5%는 유지하기로 했다.

홍 회장은 중흥그룹과 협의에 따라 헤럴드의 인정적인 경영지원을 위해 지분 5%는 유지하기로 했다.

홍정욱 회장, 헤럴드 14년 연속 흑자 경영 이후 매각

중흥그룹, 편집권 독립·자율경영·고용승계 원칙 밝혀

이번 지분 양수도의 가격 등 세부 조건은 양측 합의 아래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헤럴드의 새 대주주인 중흥그룹은 지난해 기준 자산총액 9조5000억 원으로 재계서열 34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중흥S-클래스 브랜드를 앞세운

주택사업을 중심으로 지난해 연 매출 5조 원에 이르는 등 가파른 성장을 일궜다. 주요 계열사로 중흥건설과 중흥토건 등이 있다.

한편 중흥그룹은 2017년 광주·전남 일간지인 날도일보를 인수하기도 했다.

신봉우 기자



IT업계 첫 '대기업' 된 카카오

공정위, 카카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

카카오의 자산이 10조원을 넘어서며 정보기술(IT) 기업 가운데 첫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됐다. 1995년 다음커뮤니케이션이라는 스타트업으로 출발해 24년 만에 명실공히 대기업으로 성장한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IT 산업의 위상을 보여준다는 진단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번 대기업 집단 지정으로 규제가 강화돼 공격적인 인수합병(M&A)을 핵심 동력으로 성장해온 카카오가 항후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는 데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공시대상 기업집단(준대기업 집단) 59개 가운데 기업집단 34개(소속회사 1421개)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5월 공정자산 규모 10조원 이상 기업을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하는 데 올해 카카오와 HDC(구 현대산업개발) 등 총 2곳을 새로이 편입했다.

제조업이 아닌 IT 기업으로선 처음으로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사례가 나온 것이다. 앞서 카카오는 2016년에도 대기업 집단에 이를 올렸다. 당시 IT 기업을 일반 제조업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지적에 따라 자산 기준이 기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됐고 카카오는 6개월 만에 대기업 지정에서 벗어난 바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자산이 올해 10조6000억원으로 작년의 8조5000억원에 비해 24.7%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준대기업집단 59개 가운데 자산순위가 39위에서 32위로 7계단 올랐다. 카카오 소속회사 수는 올해 71개로 전년보다 1개사 줄었다. 카카오 동일인(총수)은 기존대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유지했다.

카카오와 함께 대기업 집단 진입 가능성성이 제기됐던 경쟁사 네이버는 올해 준대기업 집단에 끌려들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